

# “처음이라 서툴지만 이웃들을 생각하니 뿌듯했다”

## 사대부고 연탄·직접 담근 김장김치 나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교장 김용곤) 학생들이 지난 주말 소외 이웃을 찾아 연탄과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세밀 사랑을 실천했다.

전북사대부고 한울봉사단과 학생회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간 금안동 일대에서 1천4백여장의 연탄과 김장 김치를 독거노인 등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지난 3개월 동안 심시일만 성금을 모금했고 학생들의 성원으로 모인 성금 83만 원으로 연탄을 구입했다. 한울가죽봉사단은 김장 준비를 했다.

25일 한울가죽봉사단과 학생회 학생 70여 명은 사대부고 급식실에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김장을 담그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지영 학생(전북대사대부고 2학년)은 “처음 해보는 김장이라 많이 서툴렀지만 맛있게 먹어줄 이웃들을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다”고 나눔의 기쁨을 전했다. 이어 26일 오전 9시부터 학생들은 금안동 일원의 불우이웃 다섯 세대에 전달 담근 김치와 연탄을 배달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1,400장의 연탄과 김치를 전달했다. 학생들은 얼굴에 연탄가루를 묻히면서도 이웃을



전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주말 소외 이웃을 찾아 연탄과 직접 담근 김치를 전달하며 세밀 사랑을 실천했다.

듣는다는 즐거움에 마냥 들뜬 표정으로 행사에 임했다.

김용곤 교장은 “학교에서만 배움이 이뤄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배움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실천하는 배움을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무주군실버태권도 봉사단, 노익장 과시 저력 발휘

무주군실버태권도 봉사단이 지난 25일 수원 칠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국무총리기 전국생활체육태권도대회(단장 김병주)에 20명의 단원은 품새 대회에 A, B, C조로 나뉘어 출전해 A조는 우승을 B조와 C조는 준우승 등 종합우승을 했다.



이번 대회에서 개인전에 출전한 80대부 박복수(80)씨가 우승을 70대부는 남녀로 나뉘어 출전한 남자부 박우하(74)씨가 우승을 여자부 김용자(75)씨가 준우승을 차지해 출전자 전원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에 무주 실버태권도봉사단의 저력을 또 한 번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한 태권도인들의 부러움과 귀감이 되었음은 물론 태권도 성지의 위상과 명예를 한껏 드높이고 노익장도 유감없이 과시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원광대병원,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 진행

지난 25일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교직원과 원누리후원회, 노동조합의 후원으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절임 배추와 양념 재료 등을 준비해 김치 1,500포기(3,000kg)를 정성껏 담은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원광대병원 원누리 후원회는 매년 경제,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이웃들을 위해 연탄 나눔과 쌀 등을 지원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올해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 나눔으로 저소득 가정에 온기를 전하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했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 행사에는 원광대병원 최두영 병원장과 교직원, 정현을 익산시장,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춘진 전북도당 위원장 부인인 오명숙 씨, 이현숙 도의원, 시청 관계자들이 함께 해 나눔 행사를 빛냈다.

김장 김치 나눔 행사는 김장팀과 배달팀, 포장팀 3개 조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직원들이 담근 김치는 20kg씩 150박스를 포장해 익산시 복지청소년과에서 추천한 익산시 일대 저소득층 100세대와 마한노인복지센터에 전달되었다.

최두영 병원장은 “한 해 동안 원광대병원을 성원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드리며 교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김치가 저소득 가정의 추운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따뜻한함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정영원 기자

##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 사랑의 연탄 6000장 기탁

익산시에 어려운 이웃들의 추운 겨울을 돌보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 25일 (주)만도 Suspension사업부(본부장 최경선),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지부장 여부근)가 사랑의 연탄 6,000장(4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기탁한 연탄은 저소득층 20가구에 300장씩 지원할 예정이며, 만도 직원들이 금강동 소재 4가구는 직접 방문하여 총 1,200장을 배달하는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한편 (주)만도 Suspension사업부와 만도노동조합 익산지부는 2012년부터 사랑의 연탄나눔기, 김장김치 지원,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후원, 청소년 희망나무 프로젝트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익산=정영원 기자

## 부안군산림조합 임직원, 노인요양시설 찾아 봉사활동 나서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 오세준) 임직원 20여 명은 지난해 상서 면에 위치한 은총의 집 봉사에 이어 지난 25일 하서면에 위치한 로템실버케어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봉사활동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20여 명을 위로하였다.



이 자리에 산림조합 임직원들은 로템실버케어 노인요양 시설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수에 비료 주기와 나무전지 등을 실시하고 정원을 맡김히 청소 뿐만 아니라 산수유, 꽃 사과나무 등을 식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세준 조합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군민과 함께 하는 마음으로 군민들의 소외 받은 곳을 자주 찾아 나눔봉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 무주군 공무원,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에 성금 전달

무주군 공무원들이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23만 5천 원을 모았다.

무주군에 따르면 성금은 지난 24일까지 군청을 비롯한 읍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금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재민들을 위한 구호용품 구입과 복구사업 등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전주 KBS 방송총국을 통해 포항 지진피해 모금처로 전달할 예정이다.

직원들과 함께 성금 모금에 동참한 황정수 무주군수는 “여진이 빨리 가라앉아서 피해복구가 진행이 돼야 이재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텐데 걱정이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포항시민들의 재기를 바라는 무주군 공무원들의 마음이 지진으로 인해 집도 잃고 밤마다 불면이 시달리고 있는 포항시민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에너지 절약·농촌경제 위한 '전국옹변대회' 성료

(사)한국스피치 웬변협회가 주최한 에너지 절약, 농촌경제를 위한 제34회 전국옹변대회가 최근 전북대 평생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125명 대회참가 대회 청중 총 300여명이 참가한 웬변대회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아 전 국민에게 에너지의 중요성과 절약 방안을 계몽하여 실천하는데 이바지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선진 농업으로 복지 농촌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

이날 웬변대회에서 김중갑(임실군)씨가 전체 대상을 수상했으며, 김금남(전주시), 김중수(임실군), 이숙자(남원시)씨 등 3명이 전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성민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화요일)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치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9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 288-9700

임실은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타 지역보다 많으며 숙기의 온도가 높아  
 임실고추는 알싸하게 매우면서 달큰한 맛과 고운 빛깔을 띠고 있습니다.  
 세척부터 유통까지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의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시스템은 명품 임실고추를 생산합니다.  
 www.imsillin.kr

매콤하고 달콤한 감칠맛  
**임실 고추**

임실고추종합가공센터    세질건고추    고춧가루